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총무원장 설정 스님 초청 특별법회 봉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4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교직원 및 환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초청해 특별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앞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입원 중인 스님들의 병실을 일일이 방문해 금일봉을 전달하고 위로와 함께 쾌유를 기원했다.

이날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법문을 통해 “병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 모두가 중생의 고통을 씻겨주는 관세음보살과 병을 낫게 해주는 약왕보살,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을 갖고 책임 있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사무량심에 대해 강조했다.

또, 설정 스님은 의료진에게 자비회사 사무량심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며, 아픈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무량심을 실천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병원이 될 것이라고 축원했다.



정형외과 임군일 교수, 의학과 이종민 교수 연구팀, 연골재생 세포 관련 미국 특허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군일 교수와 의학과 이종민 교수 연구팀은 최근 연골 재생세포의 비후화를 조절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미국특허를 등록해 전 세계 줄기세포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임군일 교수와 이종민 교수 연구팀은 다년간의 공동연구 끝에 연골재생 세포의 비후화를 유도하는 핵심 원인인자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미국 특허를 획득하게 됐다.

임군일, 이종민 교수 연구팀은 분화된 연골세포에서 비후화 유도의 핵심 인자가 ‘TIEG1(TGF-β inducible early gene 1; TGF-β에 의해 유도되는 전사인자 중 하나)’이라는 유전자임을 밝혀내는데 성공했다. 연골분화 과정에서만 이 유전자와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그 효능을 억제시킬 수 있는 신규 마이크로 알엔에이(micro RNA)를 개발하게 됐다.

향후, 차세대 연골세포치료제의 제조 기술에 대한 안전성 연구와 임상연구를 거쳐 상용화가 될 경우, 기존 연골재생 세포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로서 전 세계 줄기세포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군일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이종민 교수

2017년 제13회 QI경진대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1월 18일 원내 5층 대강당에서 제13회 Q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각 부서에서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한 결실을 모아 QI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7개 팀이 다양한 주제의 구연발표를 했다.

발표에 앞서,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원내에 13개의 포스터를 전시해 전 직원과 공유했으며, 이중 ‘외래 진료대기시간 단축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이라는 주제의 포스터가 최우수 포스터로 선정됐다.

또, 이날 최종 심사를 통해 ‘H.E.A.R.T 마음으로 응답하라’라는 주제를 발표한 외과계중환자실 이노베이션 팀이 대상을 받았다.

이진호 병원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QI의 내용이 더욱 알차고 결실 또한 크다.”며, “바쁜 업무 중에 지난 한 해 동안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애쓴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더 Best Practice 더 Best CS 병동 간호팀, 간호 상황사례 발표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동 간호팀은 지난 1월 17일 ‘더 Best Practice 더 Best CS 병동 간호팀 간호 상황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간호사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자경험 디자인’ 및 ‘감염관리 격리관련 Q & A’를 주제로 진행됐다.

101병동 간호사는 환자경험 디자인으로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환자 관점에서 본 좋은 간호사, 간호사 경험과 환자 경험의 이해 등을 주제로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발전적인 간호 방향에 대한 강의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감염관리실에서는 감염관리실장 박성연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장윤정 간호사가 감염관리 업무 소개와 격리환자 관리 Q & A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간호사는 “좋은 간호사는 만남의 순간에서 환자의 경험을 포착하고 느낌을 공감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사로 발전해야 한다.”며, “최근 감염환자의 증가로 궁금했던 내용이 많았는데 Q & A 형식으로 진행되어 신선했고, 그동안의 의문점이 해소되는 알찬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